한국의 국제이주연구의 동향과 과제*

김 용 찬 (대구가톨릭대학교)
(yongchankim@cu.ac.kr)

국문요약

연구는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에 관한 양적 분석보다는 학술논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담론과 학문적 제언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담론과 학문적 제언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개념, 이론, 학문적 접근, 분야, 분석, 주장 등을 제시했던 학술논문을 선별해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논문은 국제이주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이주연구의 동향분석은 이론, 정책, 연계연구, 경향 등의 영역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이주연구의 향후 과제를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이주이론연구에서 제시된 통합적, 학제간 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색을 지속하면서도, 기존 이론에 기초해 한국의 국제이주를 분석하고 비교방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이주정책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연구의 양적 성장과 기존 이론을 통한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이주정책의 형성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주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분화와 경쟁이 촉발되면,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이주의 연계연구는 '이주의 여성화'에 따른 젠더, 송출국과 수용국의 연계, 개발과 발전, '이주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24268).

산업' 등으로 연구의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다. 국제이주경향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의 축적, 비교분석, 유형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주제어 : 국제이주, 국제이주연구, 국제이주이론, 국제이주정책, 국제이주경향

Ⅰ. 서 론

한국의 체류외국인은 2019년 5월 말 기준 2,393,189명으로 집계되었다.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자는 1,258,584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는 450,180명, 단기체류자는 684,425명으로 나타났다. 체류외국인 수는 2009년 약 117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10년 사이 두 배가 증가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2, 13). 서구 학계가 이민국가로 간주하는 기준점은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의 수가 5%이상인 경우이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이민국가로의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으로의 대규모 국제이주는 1980년대 후반 재외동포와 1990년대 초 외국인노동자의 이주로 시작되었다. 이후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의 국제이주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한국에서 국제이주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국제이주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분석은 윤인진 외(2009)의 논문 "국제이주, 소수자, 재외한인, 다문화 연구의 동향과 과제"와 이혜경(2014)의 논문 "국제이주·다문화연구의 동향과 전망"에서 다루어졌다. 윤인진 외(2009)의 연구는 석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제이주 관련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3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논문에서는 2003년 15편이었던 국제이주관련 석박사학위논문은 2009년 124편까지 증가했으며,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국제이주에 관한 학위논문이 각각 33.6%와 11.4%를 차지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이혜경(2014)의 연구에서는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국제이주연구에 관해 분석했으며, 2000년대 들어서 국제이주에 관한 연구가 학술지와 학위논문에서 공히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국제이주 관련 논문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국제이주를 주제어로 설정해 학술지 게재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279개의 논문이 집계되었다. 논문의 학문분야별 수는 사회과학분야 논문 176개, 어문학분야 논문 52개, 인문과학분야 논문 19개로 나타났다. 2005년 3개에 불과했던 논문 수는 2006년 18개로 늘어났고, 2010년 36개, 2011년 33개, 2012년 17개, 2013년 19개, 2014년 15개, 2015년 9개, 2016년 13개, 2017년 11개, 2018년 10개, 2019년 5개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왔다.

다문화를 주제어로 한 논문이 5,619개인데 반해, 국제이주를 주제어로 한 논문은 현저히 적은 수가 게재되었다.[1)]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에 관한 양적 분석보다는 학술논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담론과 학문적 제언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담론과 학문적 제언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개념, 이론, 학문적 접근, 분야, 분석, 주장 등을 선구적으로 제시했던 학술논문을 선별해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저서나 학위논문이 아닌 학술지 게재논문과 학술회의 발표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저서나 학위논문에 비해 학술논문이 가지는 학문적 주장과 제언의 시론적 특성과 독창성에 주목하기 위해서였다. 분석대상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 시기는 2000년 이후부터 2019년 2월까지로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윤인진 외(2009)와 이혜경(2014) 연구의 후속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면서도, 분석대상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연구담론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논문에서는 전통이민국가와 선발이민국가 학계의 국제이주연구에서 제시된 연구제언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한국의 국제이주연구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주와 이민에 관한 엄격한 개념정의보다는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해 분석하고 있다. 실제 기존 연구에서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이주와 이민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이 논문은 국제이주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이주연구의 동향분석은 이론, 정책, 연계연구, 경향 등의 영역을 검토하며, 이를 기초로 국제이주연구의 향후 과제를 영역별로 제시하고 있다.

Ⅱ.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의 동향

1. 한국의 국제이주이론연구

1) 비판적 분석과 대안적 접근

한국의 국제이주이론에 관한 연구 중에는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1) 출처: http://www.kiss.kstudy.com (검색일: 2019. 06. 25.). 여타 학술DB들에서 검색을 하는 경우 논문 제목과 본문에 국제 또는 이주 등의 주제어가 등장하는 경우 모두를 검색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떨어지는 논문도 상당수 표시된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학술DB는 논문 제목에 국제이주가 주제어로 표출된 경우에 한정되어 제시된 형태로 주제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제이주 주제어 검색은 다문화에 비해 국제이주 연구가 현저히 적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다른 학술DB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안적 접근 또는 이론을 모색했던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어왔다. 국제이주이론에 관한 초기 연구인 석현호(2000)의 논문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에서는 기존 국제이주이론을 발생론, 영속화론, 적응론 등으로 구분하고, 선행이론들이 국제이주에 관한 '총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행위체계론적 접근'을 제시했다. 행위자의 이주상황에 주목하는 '행위체계론적 접근'을 통해 신고전경제학적 접근과 구조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석을 위한 이주행위의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으로 설정했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이주분석을 위해 김용찬(2006)은 논문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 국제이주이론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을 주장했다. '이주체계접근법'은 국제이주의 포괄적 분석을 위한 접근법 또는 분석틀로 제시되었다. 또한 국제이주의 행위자분석에서 국가와 이주민에 관한 고찰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특히 정치학의 국제이주연구에서는 이들 행위자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제이주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이론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되었다. 전형권(2007)은 "국제이주이론의 관점에서 본 노동디아스포라의 성격"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기존 국제이주이론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주의 발생, 영속, 적응의 전 과정을 구조적 요소와 행위적 원인으로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다차원적 이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논문에서는 노동이주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즉 노동이주민은 정체성의 재구성을 통해 모국에서의 정체성과 차별화되는 '디아스포라'의 특성을 가진 존재로 변화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국제이주도 '디아스포라'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이주분석의 대안적 연구방법론으로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을 최병두(2017)는 "관계이론에서 행위자-네트워크이론으로: 초국적 이주 분석을 위한 대안적 연구방법론"이라는 논문을 통해 제시했다. 논문에서는 기존 국제이주이론을 행위이론, 구조이론, 관계이론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이주체계이론 등을 관계이론에 포함시켰다. 관계이론은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행위 대 구조와 미시 대 거시라는 이분법의 극복을 시도했지만, 개념사용의 혼란과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관계이론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연구방법으로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을 제기했다. 저자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서는 행위자-네트워크, 번역과 동맹, 위상학적 공간 등의 개념을 활용해 국제이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관계이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학문분야별 접근

정치학분야에서 김용찬(2006)은 정치학의 국제이주연구에서는 국가와 이주민을 주요 행위자로 간주해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 간 관계와 수용국과 송출국의 국내 상황을 함께 고찰할 수 있는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을 주장했다. 한편 이병하(2017)는 논문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정치학적 접근과 방법론적 쟁점"을 통해 국제이주에 관한 정치학적 분석을 위한 개념으로 이익, 권리, 제도 등을 제시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모델로 정치경제학, 국제규범, 신제도주의 등을 언급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방법론적 민족주의'에서 탈피해 도시 간 비교연구, '지표 기반 접근법'과 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민자에 대한 심층조사를 포함한 '혼합 연구 방법' 등을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국제정치학의 주요 주제와 국제이주와의 연계연구를 시도한 논문도 제시되었다. 이용승(2014)은 논문 "국제이주와 인간안보"를 통해 국제이주를 인간안보의 시각에서 고찰함으로써 국제정치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에서는 '이주의 안보화' 경향을 출입국, 체류, 사회통합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국제이주와 안보문제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후속연구를 위해 저자는 국가안보의 관점보다는 국제이주를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이주동기와 수용국에서의 이주민의 인간안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회학분야에서는 기존 다문화가정에 집중된 연구를 탈피해 연구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연구가 제시되었다. 이혜경(2014)은 논문 "국제이주 · 다문화연구의 동향과 전망"을 통해 사회학의 국제이주와 다문화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 논문에서는 다양한 종족소수자의 국제이주, 노동이주와 결혼이주의 연계, 국제이주와 다문화의 연계, 국제이주와 민족연구의 연계 등을 새로운 연구주제로 제기했다. 또한 사회학영역에서는 한국의 국제이주와 다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한국적 브랜드'의 모색과 초국가주의 연구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문분야별로 국제이주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이 제안되었던 한편,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시론적 연구도 제시되었다. 최병두(2011)는 논문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제적 · 통합적 연구를 위하여"에서 학제적 연구를 위해 학제간 비교분석, 공동연구, 방법론과 개념의 통합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미시와 거시적 차원을 결합한 통합적 이론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학제적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비교분석이 진행되어야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특정 주제를 선정해 학문분야별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시행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문분야의 개념과 방법론의 체계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제이주이론에서 제시된 개념을 활용해 사례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이소영(2011)의 논문 "광주 · 전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 분석 연구: 국제이주와 적응의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 개념을 활용해 광주와 전남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국제이주와 적응을 분석했다. 이주와 적응 과정에서 형성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했다. 논문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은 가족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 민족문화네트워크로 구성되며, 이주와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3) 국제이주이론연구의 특징

국제이주이론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이민국가와 선발이민국가의 학계에서 제시된 이론에 대한 설명과 평가가 제시되었다. 기존 이론에 대한 유형화와 설명은 대체로 매시 외(Massey 외 1998)와 카슬과 밀러(Castle & Miller 2018)의 이론 구분을 활용했다. 둘째, 기존 국제이주이론이 국제이주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이주의 형성, 유지, 정착 등에 관한 포괄적 연구와 구조와 행위자의 역할에 관한 통합적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대안적 접근으로 '행위체계접근', '이주체계접근법', '행위자-네트워크이론' 등이 제안되었다. 포괄적이고 통합적 연구의 필요성 제기는 서구 학계에서도 있어왔지만 대안 제시가 미약했던 것을 보면, 한국 학계의 다양한 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국제이주이론에 관한 학문분과별 연구의 분화와 영역의 확대가 진행되었다. 초기 사회학에서 활성화된 국제이주이론연구는 정치학과 지리학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학문분과별 접근법과 방법론, 학문영역의 주제와의 연계 등에 관한 고민들이 논문으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정치학은 국제이주에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연구에 집중했으며, 사회학은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해 이주민의 선택과 이에 영향을 미친 상황, 네트워크의 구축과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했다. 또한 학문분과별로 분절화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제간 연구에 관한 제언이 제시되었다. 넷째, 기존 이론의 개념과 분석틀을 활용해 한국의 국제이주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2. 한국의 국제이주정책연구

1) 사례고찰과 비교분석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연구는 한국과 외국의 이주정책에 관한 사례검토와 비교분석

등이 주를 이루어왔다. 김윤식(2008)의 논문 "국제 이주노동정책과 이민노동자에 대한 연구: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을 사례로 비교분석했다. 사례국가 이민정책의 비교기준으로 강제퇴거, 불법고용주 처벌, 자발적 귀환지원, 합법화 조치 등을 제시했다.

한국의 국제이주정책의 특징을 규정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병렬 · 김희자(2011)의 논문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에서는 '차별배제'와 '동화'의 유형구분을 활용해,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외국국적 동포노동자, 비동포 이주노동자, 화교, 난민 등에 대한 정책을 분석했다. 저자들은 한국의 이주정책을 '차별배제모형'으로 간주하면서, 세부적으로는 민족 내부와 민족과 비민족 간의 차별과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층화적 차별배제 모형'으로 규정지었다.

한국의 국제이주정책을 노동이주에 초점을 두어 현안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이규용(2014)의 논문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에서는 이주민의 유입정책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인구변동과 이주정책, 노동시장과 외국인력정책 등으로 쟁점영역을 구분했다. 또한 개별 쟁점영역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해결방안으로 이민정책의 선별기능 강화, 이주 수요의 분석과 해외사례의 평가, 국내 노동시장의 유휴인력 분석 등을 제기했다.

국제이주정책을 영주권의 측면에서 조망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김희강 · 류지혜(2015)의 논문 "다문화시대의 이민정책: 영주권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는 영주권제도의 규범적 논의를 토대로 영주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버마스의 정치공동체 개념을 영주권제도 개선의 규범적 근거로 삼아, 취득자격의 보편성, 사회적 권리 보장, 귀화제도와의 연계 등을 개편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논의를 적용하면 한국의 정치, 문화, 헌법 등의 원리에 대한 공유가 사회통합을 위한 구속력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이주민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이주정책의 사례와 비교분석에 국한되었던 기존 연구에서 탈피해 국제이주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설동훈 · 전진영(2016)의 논문 "국회의 이민정책 결정과 정당정치: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는 18대 국회에서 다루어진 이민정책관련 법안을 사례로, 국회의 이민정책 결정과정과 정당의 정책차별성 등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서구에서는 이민정책을 둘러싼 정당 간 차별성이 표출된 이후, 최근 이민정책에 관한 입장에 있어 수렴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정을 제외하고 한국의 18대 국회의 경우 정당 간 이민정책에 관한 입장이 차별화과정 없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원인을 저자들은 이주민을 위한 기초적 제도개선에 따른 정책차이의 여지 부족,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정당이념의 중도로의 수렴 등으로 제시했다. 이주민의 규모증가에 따른 이슈 발생

과 극우정치세력의 성장 가능성 등이 정당 간 정책경쟁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기존 주장을 한국사례에 적용해 분석하고자 시도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사득환(2018)의 논문 "이민정책의 패러독스: 한국적 적실성과 가능성"은 '원하지 않는 이민을 수용'하는 '정책 패러독스'(policy paradox) 또는 '간격 가정'(gap hypothesis)에 기초해 한국의 이민정책을 사례로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합법이민과 불법이민 사이의 패러독스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이민정책의 명확화, '이민청'의 설립, '이민법' 제정과 통합교육 등을 제시했다.

위의 연구들이 국가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제이주정책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반해 지방정부의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제기되었다. 김혜순(2016)의 논문 "이민현상에서 정책과 지역: 지자체 이민정책의 분석"은 국제이주연구에서 정책과 지역연구가 미비한 상황을 지적하고, 정책과 지역을 연계한 지방정부의 이민정책 분석을 시도했다. 이주현상에 선행하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이주현상의 공간인 지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논문에서는 경북과 전남을 비교사례로,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2) 국제이주정책연구의 특징

국제이주정책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분석과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을 진행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한국의 노동이주를 포함한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해외사례와의 비교연구는 주로 한국의 국제이주정책과 전통이민국가 또는 선발이민국가의 정책을 비교검토한 후 한국사회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둘째, 기존 개념 또는 이론의 적용을 통해 한국의 국제이주정책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김희강 · 류지혜(2015)와 사득환(2018)의 연구는 각각 하버마스의 개념과 '간격 가정'개념을 활용해 한국의 국제이주정책을 분석했다. 셋째, 국제이주정책의 결정과정과 지역수준의 이주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가 논문으로 제시되었다. 이주정책의 결정과정은 블랙박스처럼 간주되어 서구와 한국 학계에서 연구가 미진한 영역으로, 시론적 연구의 제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서구에 비해 중앙집중화된 한국에서 지방정부의 이민정책에 관한 분석시도는 새로운 연구영역의 개발과 지역 간 또는 도시 간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3. 한국의 국제이주와 개발, 발전, 젠더, 국제협력 연구

1) 국제이주와 개발, 발전, 젠더, 국제협력 연계연구

한국 학계에서 국제이주와 개발, 발전, 젠더, 국제협력 등의 문제를 연계하여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국제이주와 국제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을 연계한 연구는 정책, 거버넌스, 행위자, 원조 등에 초점을 두었다. 조영희(2015)의 논문 "국제이주와 개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과 이민정책의 변화"에서는 국제이주와 개발에 관한 논의가 '촉진적 다자주의'(facilitative multilateralism)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과 개별국가의 이민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Post-2015 개발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주를 통한 개발' 관점과 '개발계획에서의 이주의 주류화' 등의 제시를 통해 이주가 개발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제시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개발 친화적'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발 친화적' 정책으로 송금지원과 노동력순환 장려 등이 포함되었다.

국제이주의 행위자인 이주민이 개발원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제시되었다. 김은미 · 정현주(2016)의 논문 "공적개발원조와 국제이주: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가 이민송출국으로의 원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에서는 한국의 원조배분에는 유입된 이주민의 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결혼이주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개발원조와 관련해 공여국 내 특정 송출국 출신 이주민의 수가 늘어날수록, 해당국가에 대한 원조가 증가한다는 가설을 한국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가설은 한국의 경우에도 적실성을 가지며, 결혼이주자,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중 결혼이주자의 수가 원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국제이주와 발전 관련해서는 행위자인 이주민이 송출국과 수용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신지원(2015)의 논문 "국제이주와 발전의 연계 담론에서 '디아스포라'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는 '디아스포라에 의한 발전'을 인도, 아프리카, 멕시코 출신 디아스포라의 초국가 네트워크와 활동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디아스포라에 의한 발전'을 두뇌순환, 공동발전, 초국적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례로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IT 지식교류 네트워크, 두뇌순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이주' 프로그램, 멕시코 디아스포라의 재외향우회 등을 검토했다. '디아스포라에 의한 발전'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디아스포라의 동기와 송출국과 수용국의 역할과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인도 출신 IT기술자를 사례로 이주민에 의한 경제발전 연구가 발표되었다. 김지송(2017)

의 논문 “고숙련 노동자의 국제이주와 경제발전의 이론적 접근: 실리콘밸리 인도 엔지니어들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에 취업했거나 취업하고 있는 인도 IT기술자의 국제이주와 네트워크 구축을 분석했다. 인도 이주민은 미국 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도로 귀국하여 지식과 기술을 확산시키는 행위자로 역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귀국한 인도 IT기술자는 투자유치, 지사 설립, 기술이전 등으로 모국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이주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이주노동자를 사례로 분석한 연구가 제기되었다. 박범종(2017)의 논문 “국제이주와 지역발전에 대한 함의: 한국의 국제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면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주노동자는 노동인력확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3D업종과 1차 산업 종사, 지역경제 활성화, 다문화인식 제고 등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저숙련노동력 임금하락, 불법체류자 문제, 사회적 혼란 야기 가능성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이주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도 최근에 제시되었다. 황정미(2018)의 논문 “개발국가의 해외이주 정책과 젠더”에서는 1962년부터 1987년까지 한국인의 해외이주를 젠더의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민족주의와 결합된 개발 프레임과 젠더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석시기를 ‘개발국가’의 시대로 규정하고, ‘개발국가’의 해외이주정책에 내재되어있는 ‘젠더 위계’에 관해 고찰했다. 저자는 ‘개발국가’ 초기 한국여성의 해외취업이 주는 ‘생존의 여성화’(feminization of survival)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국가 민족주의와 결합된 개발 프레임에서 탈피해 한국의 국제이주를 분석할 것을 주장했다.

국제이주의 원인, 경험, 정체성 등을 젠더의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문경희(2018)의 논문 “젠더와 국제이주: 호주 한인 ‘1세대’ 여성의 이민 과정과 삶의 경험을 중심으로”에서는 젠더의 시각에서 호주에 정착한 한인 여성의 이주 원인, 과정과 경험, 젠더 정체성 등을 분석했다. 호주의 이민정책과 여성 노동정책으로 인해 이주할 수 있었던 한인 ‘1세대’ 여성들은 가부장적 가족과 젠더 관계가 유지되고 강화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한인 여성의 경제활동이 임파워먼트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제이주에 관한 국가 간 협력과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미우라 히로키(2011)의 논문 “이주노동자문제와 동아시아 다층 거버넌스: 연성법 관점에 기반한 분석과 함의”에서는 동아시아 이주노동자사례를 연성법(soft law)과 다층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저자는 연성법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행위규칙’이라고 정의했다. 동아시아 이주노동자문제의 경향을 ‘지역화’, ‘지방화’, ‘국제법 비준과 지역기구 구축에 대한 주요 수용국의 소극성’으로 제시하면서, 지역적 다층 거버넌스로서 동아시아 이주노동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연성법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하(2019)의 논문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에서는 글로벌 수준과 지역 단위에서의 국제이주 관련 국제협력을 진단하고, 동아시아지역에서 국제이주 거버넌스의 형성 방안을 제안했다. 논문에서는 국제이주분야에서 국제협력이 어려운 원인으로 주권영역, 동기부족, 이익조정의 어려움, 국가 간 힘의 불균형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저자는 지역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로 확대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다층 거버넌스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거버넌스의 국제사례 검토를 기초로, 동아시아지역 이주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정합성에 기반을 둔 다층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동아시아 이주 네트워크’의 구축, 의제와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 국제이주와 개발, 발전, 젠더, 국제협력 연계연구의 특징

국제이주와 개발, 발전, 젠더, 국제협력 등을 연계한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이주와 이들 분야와 연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계연구는 국제이주연구의 발전과 한국사회의 국제이주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이 발전하면서 원조의 공여국이면서 국제이주의 수용국인 한국으로서는 국제개발을 국제이주와의 연관 속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국제이주와 개발을 연계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셋째, 국제이주가 이주 수용국과 송출국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도 제기되었다. 국제이주로 인한 송출국의 발전을 국제개발의 관점에서 파악한 연구와 달리, 신지원(2015)의 연구에서는 행위자인 이주민의 역할에 주목했다. 한편 국제이주가 수용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박범종(2017)의 연구는 국가수준이 아닌 지역차원에 미치는 국제이주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했던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경향의 강화로 국제이주에서 여성의 역할과 변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를 반영해 국제이주를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제시되었다. 기존 연구가 여성이주자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에만 집중되었던 반면, 국제이주에 관한 젠더관점의 제시는 이주, 정착, 통합의 과정에서 여성의 성역할과 이의 변화에 주목했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섯째, 국제이주에 관한 협력과 거버넌스의 구축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국제이주를 둘러싼 국제협력이 글로벌 수준과 유럽지역에서 발전해오면서, 지역 내 협력이 부재하다시피 한 동아시아지역에서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제시되기 시작했다. 연성법의 관점, 다층 거버넌스, 네트워크, 점진적 접근방법 등 동아시아 이주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시론적 제언이 제출되었다.

4. 한국의 국제이주경향연구

1) 비교분석과 연계연구

국제이주의 경향과 유형 등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표되어왔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 국제이주에 관한 분석과 국제이주와 국내이주의 연계분석을 시도한 연구를 고찰하고 있다. 동아시아 노동이주의 현황, 유형, 특성 등에 관한 연구가 제시되었다. 최영진(2010)의 논문 "동아시아에서의 노동이주의 동학: 경향, 유형 및 개발과의 연계"에서는 동아시아 국제이주를 거시 구조적 조건, 미시적 요인, 사회적 연결망, 송금과 발전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동아시아 노동이주의 경향을 합법, 불법, 강제와 비정규 등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노동이주의 원인을 동아시아국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했다. 또한 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의 송금이 개발에 미친 영향을 사례국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찰했다. 송금의 대부분은 생산적 투자가 아닌 소비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송출국과 출신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시아 노동이주의 과정과 특성을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최병두(2012)의 논문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에서는 국제이주를 관계요인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검토한 후, 동아시아 노동이주의 과정과 특징을 분석했다. 동아시아의 국제이주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중동국가로의 이주와 1990년대 이후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의 이주로 구분해 분석했다. 지역 내 노동이주의 특성을 이주의 증가, 이주형태와 경로의 다양화와 복잡화, 저숙련노동력 중심 이주, '이주의 여성화'와 임시이주, 미등록이주의 확대 등으로 제시했다.

한편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연계를 분석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주의 연계성을 규명하려는 논문이 제시되었다. 김경학(2010)의 논문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접목: 인도 뻔잡의 사회 · 경제적 양상에 관한 시론적 연구"에서는 인도의 뻔잡 주의 도압(Doab)지방에서 외국으로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자, 타 지역으로부터 많은 노동자가 해당지역으로 이주하는 사회적, 경제적 양상을 고찰했다. 뻔잡 출신 이주노동자의 송금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확산으로 노동력과 농업인력 수요가 발생하자, 타 지역 노동자와 계절노동자 자격으로 네팔 출신 노동력이 이주해온 상황을 심층면접 등을 통해 분석했다.

2) 국제이주경향연구의 특징

한국의 해외이주와 국내로의 이주를 설명하는 연구와 특정국가의 국제이주를 고찰하는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왔다. 기존 연구가 개별국가 중심의 분석에 국한된 것과 달리 위에서 제시된 연구는 지역차원의 국제이주를 분석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동아시아지역을 분석대상으로 국제이주의 경향을 진단하고 유형화를 제시했으며, 국제이주의 원인을 이주이론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제시하려고 시도했다. 개별 사례분석에 국한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탈피해, 지역차원의 국제이주에 주목하면서 수용국과 송출국의 거시적 요인과 이주민의 행위와 네트워크 등의 미시적 요인 등을 원인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한편 국제이주와 국내이주의 연관성에 주목한 연구가 미비했던 상황에서, 김경학(2010)의 연구는 인도사례에 관한 시론적 분석을 통해 국내이주와 국제이주 연구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함의를 제공해주었다.

Ⅲ.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의 과제

1. 국제이주이론연구의 과제

국제이주이론연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한 이론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국제이주이론의 개념과 분석틀을 활용한 한국 사례분석이 늘어나야 한다. 한국 국제이주의 양적 증가와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서구의 경험에 기초한 국제이주이론의 적용 및 검증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개인, 가계, 공동체의 선택과 결정, 분절화된 노동시장, 세계자본주의체제, 이주체계,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이론의 접근법을 통해 한국의 국제이주를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증가했다. 기존 이론에 대한 평가와 한계를 지적하는 매시 외(Massey 외 1998)와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 2018) 같은 서구 학계의 연구가 유입되면서, 한국의 국제이주이론연구는 기존 이론의 한국사례 분석을 위한 활용 가능성과 적실성의 정도를 검토하기 전에 선행이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 제시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 기존 이론을 활용한 한국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이론의 수정과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위한 제안이 제시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이주사례를 이론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서구 학계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사례를 발굴해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는 이론화 과정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재외동포의 이주, 노동시장 편입, 정착, 재이주,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동반 재이주, 한류에 영향을 받은 국제이주 등은 기존 이론들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들 사례의 분석을 통해 개념과 분석틀을 새롭게 정립하는 이론화가 진행될 수 있고, 국제이주이론에 관한 담론을 서구 학계에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단일사례 분석보다는 한국과 해외사례 또는 한국 사례를 비교분

석하여 고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비교분석은 이론의 적실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방법인 동시에 학문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도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포르테스와 드윈(Portes and Dewind 2010)은 편저에서 비교연구와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미와 유럽 사례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유사성과 차이점을 평가하는 것이 편저의 목적임을 명확히 했다. 가령 한국의 경우 베트남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국제이주를 비교분석해 유사와 차이를 규명하고, 이를 기초로 추가적인 사례분석을 더해 유형화하거나 개념화할 수 있다면 이론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이주이론의 새로운 영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이혜경(2014)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초국가주의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초국가주의 개념의 모호성에 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주민에 의해 구축되고 있는 초국가적 활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이주민의 초국가적 활동은 미래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된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다. 한국의 경우 재외동포연구에서 초국가주의에 주목하는 연구가 제시되었다. 재외동포 이외에 이주민공동체의 초국가주의에 관한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버토벡(Vertovec 2010)의 연구에서처럼 초국가주의의 영향에 관한 연구도 시도되어야 한다. 초국가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변환(transformation)에 주목한 그의 연구는 한국의 초국가주의 연구에도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 재외동포 초국가주의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종교적 영향에 관한 연구로 시작해, 다른 이주민공동체에 대한 사례분석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제간 연구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학제간 연구를 위해서는 최병두(2011)가 언급한 것처럼 사례를 선정해 학문분야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의 국제이주를 이주동기, 노동력정책,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해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공동 연구하는 방식이다. 공동연구는 논문보다는 저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학제간 연구과정을 거쳐 개념과 분석틀, 방법론 등에서 통합 또는 학제간에 공유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카슬과 밀러(Castle and Miller 2018)가 언급한 것처럼 국제이주의 거시, 중위, 미시구조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이주체계와 네트워크 분석은 학제간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국제이주연구에 관심이 부족했던 경제학과 같은 학문분야의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국제이주정책연구의 과제

기존 연구의 분석을 기초로 한 국제이주정책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이주정

책에 관한 연구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김혜순(2016)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에서 정책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재외동포 등 이주민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미비한 편이다. 후발이민국가인 한국에서 이주정책의 국제이주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기에,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연구가 증가해야 한다.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연구도 단일사례 분석보다는 다른 사례와의 비교분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지평의 확장은 이병하(2017)가 방법론으로 제시한 도시 간 비교분석을 위한 유용한 기초가 될 것이다.

둘째, 국제이주정책과 관련된 이론을 활용해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이주정책에 대한 대표적 이론적 접근은 홀리필드 외(Hollifield 외 2014)의 연구에서 제시된 '간격'(gap)과 '수렴'(convergence)가정이다. 저서에서는 '이주통제의 딜레마'(dilemmas of immigration control)를 지적하면서 국제이주정책의 목표와 결과 사이의 '간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노동력을 충원하는 정책에서는 '수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국가별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있다. 사득환(2018)의 연구는 '간격 가정'을 한국의 국제이주를 분석하는데 활용한 시도로 의미를 가진다. 국제이주정책의 '간격'과 '수렴'가정을 통해 한국 사례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국제이주정책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정책의 형성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로 심화되어야 한다. 이주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정당 간의 차이와 수렴에 주목한 설동훈 · 전진영(2016)의 연구는 시론적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향후 정당 간 정책의 분화가 진행된다면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이주정책의 형성과 결정과정 분석을 위해 프리만(Freeman 1995)이 제시한 국제이주를 둘러싼 이익정치(interest politics)와 바트램(Batram 2005)이 언급한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등에 관한 연구도 한국사례에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누가 어떠한 인식에 기초해 결정하며 누구의 이익이 반영되고 있는지 등 국제이주정책의 형성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 과정, 행위자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카슬(Castles 2010)이 지적한 것처럼 선거와 통상정책 등 그동안 간과되었던 국제이주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도 분석이 요구된다.

3. 국제이주와 연계연구의 과제

국제이주와 연계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언급된 주제 이외에 국제이주와 여타 연구주제와의 영향 또는 연계에 주목해야한다. 이혜경(2014)의 논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외국인노동자 이주와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등 다양한 국제이주의

상호연계성, 국제이주와 정착, 국제이주와 시민권, 국제이주와 이주민공동체, 국제이주와 '이주 산업'(migration industry), 국제이주와 인구부족 등의 연계와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이주 산업'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으로 앞으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국제이주와 문화 · 종교의 연계에 관한 연구도 요구된다. 한류의 영향과 이슬람에 대한 국민적 인식, 문화적 차이 등도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이주와 인구문제와의 연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처럼 인구부족의 문제를 국제이주가 해결해주었던 사례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의 국제이주와 인구부족에 관한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카슬과 밀러(Castle and Miller 2018)의 지적처럼 국제이주가 한국과 송출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야 한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국제이주가 송출국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주안점을 두는 최근 연구가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과 같은 수용국에 미친 국제이주의 영향을 국가와 지방차원으로 구분해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국제이주가 한국과 송출국의 새로운 연계를 창출하고 있는지도 분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제이주와 개발 관련 연계연구가 시론적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젠더 관점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는 수준을 탈피해 가족, 지방, 국가, 국제 수준에서 국제이주와 관련된 젠더 문제의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이주의 여성화'가 야기하고 있는 송출국과 한국에서의 문제에 관해 면밀한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주여성의 한국으로의 국제이주의 동기와 과정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주여성의 정착, 노동시장 편입, 가사와 육아, 송출국에서의 사회적 지위 변화 등을 젠더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가 증가해야 한다.

4. 국제이주경향연구의 과제

국제이주경향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이주경향에 관한 비교분석과 유형화가 증가해야 한다. 최영진(2010)과 최병두(2012)의 연구에서처럼 국제이주의 경향과 특성을 고찰하고,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가 늘어나야 한다. 비교분석을 통한 특성의 도출과 유형화 과정은 국제이주의 새로운 개념과 이론 제시를 위한 후속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동아시아지역과 같이 특정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하거나, 다양한 한국으로의 국제이주경향을 비교분석하고 유형화하는 연구 또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으로의 국제이주경향에 관한 비교와 유형화 분석 이후, 다른 국가사례와 비교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론화에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재이주와 '이주의 여성화'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최근 이주민의 재이주

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이 모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재이주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를 두뇌순환 또는 이주변천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 내 이주민 중 재외동포,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등이 모국으로 재이주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주민의 재이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한국으로의 국제이주도 '이주의 여성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된 재외동포 등은 '이주의 여성화' 흐름을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의 추이와 원인을 규명하고, 위에서 언급한 젠더 관점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연계경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서구 학계에서도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연계경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인 것을 고려한다면 김경학(2010)의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이주와 국내이주를 송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와 수용국의 국제이주와 국내이주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것 모두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국제이주와 국내이주의 연계경향에 관한 연구는 한국으로의 국제이주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낮지만 송출국의 노동력구성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과 이주민의 증가가 국내인의 국내이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넷째, 국제이주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 요구된다. 국제이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후발이민국가인 한국으로의 국제이주를 사례로 역사적 분석이 진행되기에는 자료의 축적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향후 연구를 위해 국제이주의 역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검토,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이주의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이주의 동기, 원인, 이주민의 정착과 적응 등에 관한 자료의 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자료의 수집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등의 정성분석을 통한 자료의 축적과정을 거쳐야 한다.

Ⅳ. 결론

한국의 국제이주연구는 국제이주의 증가와 더불어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발전해왔다.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국제이주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탈피해 국제이주연구는 이론, 정책, 연계연구, 이주경향의 비교연구 등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다문화 관련 연구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자의 수도 제한적이다. 서구 학계에서 국제이주가 주요 학문영역으로 발전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국제이주연구 발전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국제이주역사가 짧은

후발이민국가라는 점과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된 연구의 제한성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으로의 국제이주가 급속히 증가해온 점과 노동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등에 의해 국제이주연구의 발전을 위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이주연구의 발전을 위해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연구과제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연구를 준비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논문은 2000년 이후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와 관련된 논문 중 새로운 학문적 함의를 제공해준 연구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분석하였고, 기존 연구의 검토결과와 서구 학계의 연구현황을 분석해 학문적 함의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이주연구는 국제이주의 시작, 과정, 정착과 함께 적응 또는 통합과 국제이주와 연계될 수 있는 주제들로까지 연구영역의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연구영역의 확대를 추구하면서도 중심적 연구는 국제이주의 거시, 미시, 중위 원인, 국제이주의 지속, 중단, 재이주의 과정, 이주민의 정착과 편입, 국제이주의 송출국과 수용국에 대한 영향, 국제이주와 이주민공동체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비교분석을 통해 개념화와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이론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이주와 사회통합의 연계는 언급한 연구의 축적과 함께 시도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즉 국제이주의 수용국에 대한 영향과 이주민공동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발전과 함께, 수용국의 사회통합정책과 이주민의 사회통합이슈를 연계해 다루게 되면 연구의 적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

국제이주이론연구에서 제시된 통합적, 학제간 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색을 지속하면서도, 기존 이론에 기초해 한국의 국제이주를 분석하고 비교방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이주정책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연구의 양적 성장과 기존 이론을 통한 국제이주정책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이주정책의 형성과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주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분화와 경쟁이 촉발되면, 중요한 연구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이주의 연계연구는 '이주의 여성화'에 따른 젠더, 송출국과 수용국의 연계, 개발과 발전, '이주산업' 등으로 연구가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다. 국제이주경향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의 축적, 비교분석, 유형화 등의 지속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국제이주와 관련된 모든 학술논문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또한 논문 선별의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나 실수로 인한 누락 등의 오류로 중요한 학문적 성과를 담고 있는 논문을 검토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한국의 국제이주연구에 관한 저서,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발이민국가로서 국제이주에 관한 데이터 축적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제이주연구에 매진해온 연구자들께 경의를 표한다.

참고문헌

- 김경학. 2010.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접목: 인도 번잡의 사회 · 경제적 양상에 관한 시론적 연구. 남아시아연구 16(2), 1-37.
- 김용찬. 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0(3), 81-107.
- 김윤식. 2008. 국제 이주노동정책과 이민노동자에 대한 연구: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2008년 10월, 35-52.
- 김은미 · 정헌주. 2016. 공적개발원조와 국제이주: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가 이민송출국으로의 원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6(2), 289-325.
- 김지송. 2017. 고숙련 노동자의 국제이주와 경제발전의 이론적 접근. 현상과 인식 41(1/2), 138-173.
- 김혜순. 2016. 이민현상에서 정책과 지역: 지자체 이민정책의 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6년 6월, 313-327.
- 김희강 · 류지혜. 2015. 다문화시대의 이민정책: 영주권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학보 49(1), 223-244.
- 문경희. 2018. 젠더와 국제이주: 호주 한인 '1세대' 여성의 이민 과정과 삶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7(1), 49-102.
- 미우라 히로키. 2011. 이주노동자문제와 동아시아 다층 거버넌스: 연성법 관점에 기반한 분석과 함의. 국제정치논총 51(3), 153-185.
- 박범종. 2017. 국제이주와 지역발전에 대한 함의. 국제정치연구 20(2), 107-131.
- 사득환. 2018. 이민정책의 패러독스(Paradox): 한국적 적실성과 가능성.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295-318.
- 석현호. 2000.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23(2), 5-37.
- 설동훈 · 전진영. 2016. 국회의 이민정책 결정과 정당정치: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1(2), 137-172.
- 신지원. 2015. 국제이주와 발전의 연계 담론에서 '디아스포라'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디아스포라연구 9(2), 7-36.
- 윤인진 · 유태범 · 양대영. 2009. 국제이주, 소수자, 재외한인, 다문화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년 12월, 237-248.

■ 이규용. 2014.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노동리뷰 2014년 11월, 7-31.
■ 이병렬 · 김희자. 2011.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 경제와사회 90, 320-362.
■ 이병하. 2017. 국제이주 연구에 있어 정치학적 접근과 방법론적 쟁점. 연구방법논총 2(1), 23-51.
■ _____. 2019.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 담론 201 22(1), 7-43.
■ 이소영. 2011. 광주 · 전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 분석 연구: 국제이주와 적응의 네트워크 관점에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2011년 6월, 25-61.
■ 이용승. 2014. 국제이주와 인간안보. 국제관계연구 19(2), 137-169.
■ 이혜경. 2014. 국제이주 · 다문화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 15(1), 129-161.
■ 전형권. 2007. 국제이주이론의 관점에서 본 노동디아스포라의 성격.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007년 11월, 95-130.
■ 조영희. 2015. 국제이주와 개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과 이민정책의 변화. 국제정치연구 18(1), 151-173.
■ 최병두. 2011.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제적 · 통합적 연구를 위하여. 현대사회와 다문화 1, 1-33.
■ _____. 2012.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362-395.
■ _____. 2017. 관계이론에서 행위자-네트워크이론으로: 초국적 이주 분석을 위한 대안적 연구방법론. 현대사회와 다문화 7(1), 1-47.
■ 최영진. 2010. 동아시아에서의 노동이주의 동학: 경향, 유형 및 개발과의 연계. 신아세아 17(4), 191-221.
■ 황정미. 2018. 개발국가의 해외이주 정책과 젠더. 페미니즘 연구 18(1), 3-46.
■ Bartram, David. 2005.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Foreign Workers and Public Policy. Palgrave Macmillan.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한국이민학회 옮김. 2018. 이주의 시대. 일조각.
■ Castles, Stephen. 2010. The Factors that Make and Unmake Migration Policies. Alejandro Portes and Josh DeWind, eds. Rethinking Migration: New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Berghahn Books, 29-61.
■ Freeman, Gary P. 1995. Modes of immigration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 881-902.
■ Hollifield, James F., Philip L. Martin and Pia M. Orrenius. 201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ssey, Douglas S., Joaquin Arango, Graeme Hugo, Ali Kouaouci, Adela Pellegrino and J. Edward Taylor. 1998. Worlds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ium. Clarendon Press.
- Portes, Alejandro and Josh DeWind. 2010. A Cross-Atlantic Dialogue: The Progress of Research and Theory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Migration. Alejandro Portes and Josh DeWind, eds. Rethinking Migration: New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Berghahn Books, 3-26.
- Vertovec, Steven. 2010. Transnationalism. Routledge.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5월호.

● 투고일: 2019.07.23. ● 심사일: 2019.07.25. ● 게재확정일: 2019.08.06.

| Abstract |

The Review and Suggestions of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in Korea

Kim Yongchan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nd mak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udi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Korea. It examines selected academic articles that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studi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near future and focuses on the analysis of academic discourses and arguments in the articles. This research introduces the review of articles in relation to the theories, policies, related studies and trends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Korea and proposes several comments o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It presents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udi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as follows. First, there will be a need for more analysis of immigration to Korea on the basis of established theories such as economic theories, social network and immigration system with the pursuit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comparative analysis. Second, the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in Korea require to focus on formation and decision making of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and to increase of the quantity in research on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Third, the related studi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need to extend the range of subjects like linkages between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and migration industry in addition to gender and development. Fourth, the studies on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 demand the collection of historical data, comparative research and typology.

〈Key words〉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International Migration Theory,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